DBpia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4, Vol. 16, No. 3, 511-532

잠재된 비행청소년의 애착유형(AAI)에 따른 아동기 양육경험과 문제행동

이 경 숙† 엄 혜 련 정 영 윤

한신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학교부적응과 비행문제를 보이는 잠재된 비행청소년 30명과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 일반청소년 30명의 애착유형과 아동기 양육경험 및 문제행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군에게는 AAI(성인애착검사), K-YSR, 교사에게는 품행장애·반항성장애 판별체크리스트를 실시하였다. 결과 집단별 애착유형분포는 잠재된 비행청소년이 무시형〉 자율형〉 몰입형〉 미해결/비조직형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청소년은 자율형〉 무시형〉 몰입형 순으로 나타났다. 잠재된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아동초기 부정적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 잠재된 비행청소년 중 불안정애착유형은 안정애착유형보다 부정적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경험하였고, 일반청소년은 안정애착유형과 불안정애착유형 모두 비슷하게 부정적 생활사건을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유형별 집단간 아동기 양육경험을 비교한 결과, 잠재된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부모와의 애정경험이 적었고, 아버지의 거부경험과 방임경험이 많았다. K-YSR에서 잠재된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사고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행동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애착유형별 문제행동에서는 일반청소년은 유형별 차이가 없었으나, 잠재된 비행청소년은 불안정애착유형인 경우 안정애착유형보다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주요어 : 청소년기 애착, 성인애착면접(*AAI*), 비행, 아동기 양육경험, 문제행동, *K-YSR*

이경숙은 한신대 재활학과, 엄혜련·정영윤은 한국외대교육대학원에 근무하고 있음.
본 연구는 2003년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청구논문 자료가 사용되었음.
본 연구는 2003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8월 22일, 연세대학교 상경관)에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 : 이 경 숙, (447-791)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전화 : 031-370-6704 E-mail : debkslee@hs.ac.kr

www.dbpia.co.kr

청소년기 상담 장면에서는 비행, 품행문제가 주요 상담주제로 다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청소년 비행, 품행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는 다양한 심리학적 이론이 사용되고 있다. 1990년 후반부터는 그동안 정상발달을 이해하는 개념적 틀로써 더 많이 사용되어왔던 애착이론이 상담과 임상심리학자들에 의해 청소년들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체계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애착이론에 따라 청소년기 행동문제/품행장애와 애착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국내외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애착이론을 주장한 Bowlby(1944)가 어린 시절 부모와 정서적 유대감이 박탈된 44명의 청소년 비행 사례에 대해 발표한 이후로 청소년기 비행문제를 부모와의 애착, 아동기 양육경험으로 이해하고자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왔다. Bowlby(1969)는 부모와의 애착 유형의 형성은 아주 어린시기에 완성되고, 유아기에 일단 만들어진 '내적 작동모델'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어 한 개인의 인지와 지각을 한 곳에 치우치게 할 뿐 아니라 대인관계 환경을 선택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반면에 최근에는 이 '내적 작동모델'은 청소년기의 경험을 통해 발전하기도 하고 유연성 있게 변화할 수 있음도 고려되면서 청소년기의 애착의 의미와 그 중요성이 새롭게 다루어지고 있다 (Waters & Cumming, 2000).

이와 같이 새롭게 그 의미가 중요해진 청소년기 애착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부모가 일방적 권위를 지니는 아동기 애착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성(mutuality)을 향한 관계의 재협상이 이루어지며(Grotevant & Cooper, 1983) 둘째, 영아기나 아동기와 달리 부모에 대한 외현적인 애착행동은 감소하나, 그동안 형성되어온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청소년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율성 획득과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졌다(Allen, Hauser, Bell, & O'Connor, 1994).

이러한 청소년기 애착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여전히 부모나 기타 애착대상은 안전기저(secure base)로 남아 있으면서, 스트레스 상황시 애착체계가 재활성화 되어 부모 및 애착대상에게 도움이나 심리적 안정을 구한다(Ainsworth, 1989). Papini와 Roggman(1992)는 아동기부터 초기 청소년기에 걸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애착관계의 지지적 기능이 발달의 과도기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였다. 즉 큰 변화를 맞게 되는 초기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애착 안정성이 높을수록 자기가치감이 높고, 불안 및 우울 증상 수준이 낮아 정서적 적응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정서적인 스트레스에 완충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청소년기 애착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측정도구 중 애착유형구분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현재까지 가장 신뢰롭고 타당하다고 언급되는 도구로는 성인애착면접(AAI)을 들 수 있다. 청소년기 애착유형은 안정애착인 자율형(F:Secure-autonomous)과 불안정 애착인 무시형(Ds: Dismissing), 몰입형(E: Preoccupied), 그리고 미해결/비조직형(U/d: Unresolved/disorganized)으로 그 유형이 나누어지고, 이 유형에 따라 청소년과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방어적 스타일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George, Kaplin, & Main, 1984, 1985, 1996).

자율형(F)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표상은 객관적, 일치적, 지속적이며 애착경험에 대한 반영을 통해 새로운 생각을 갖을 수 있는 유연성을 보인다. 무시형(Ds) 청소년은 축소화전략을 사용하여 애착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자신에게 미친 영향력을 무시한다. 특히 애착 대상자로부터 겪은 부정적 경험(특히 거부의 경험)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되고 또한 부모에 대한 이상적인

www.dbpia.co.kr

생각이나 열악한 아동기 기억으로 대치되곤 한다. 이 유형의 청소년들에게 애착 대상자가 관여하려하면 이들은 피해버리고 재협상하려하면 숨어버리는 태도를 취한다. 반면 몰입형(E) 청소년은 극대화 전략을 사용하여 애착관계에서 혼란되고 지나치게 매달려 있는 특징을 보이며 문제해결과 재협상 관계에 대한 회피적인 태도를 보인다. 미해결 조직형(U/d) 청소년은 아동기 애착대상을 둘러싼 외상과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 비조직화된 형태를 보인다. 외상과 상실에 관한 표상 과정에서 명백한 비논리적 사고를 보이며 확실하지 않은 두려움, 죄의식,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확신하지 않는 등의 표상을 보인다. 애착유형과 관련하여 국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김재희과 주은선(2001)연구에서 부적응청소년은 안정애착 비율이 현저하게 적고, 회피 불안애착 유형이 많게 나타났다. 또한 애착유형분포에서 정상집단과 비행집단간에 차이는 뚜렷한 반면, 정상집단과 위험집단은 안정형, 몰입형, 무시형, 두려움형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애착유형과 관련된 아동기 부정적 생활사건연구를 보면, 아동 초기에 부정적 생활 사건을 경험한 아동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성인이 되어도 그 형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지속적인 불안정 애착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아동기에 부정적 생활사건들을 하나 또는 그 이상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Hamiltion & Claire, 2000).

비행청소년의 부정적 생활사건과 부적절한 양육경험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별거로 인해 청소년의 행동이 적절하게 지도 감독받지 못하게 되며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어 악순환이 세대간 전이되기도 한다. 둘째로, 정신적 질병 또는 약물이나 알콜 남용, 부부간의 불화를 겪는 부모가 이러한 불만과 스트레스를 자녀에 대한 과도한 통제 혹은 지나친 무관심, 공격적인 의사소통으로 나타내면 청소년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사회적 규범들을 거의 내면화하지 못하는 사회적 결함을 보인다(Dodge,1991; Dodge, Bates, & Pettit, 1990; Dodge, Pettit, Bates, & Valente,1995). 셋째로, 부모로부터 아동 초기부터 애정 결핍과 심한 배척, 무시, 거부, 비난받으며 부담스러운 존재로 키워진 아동은 자신을 아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기만 한다면 타인의 비난을 받더라도 범죄 집단에 참여하게 된다(원호택, 1990). 이와는 반대로 한쪽 또는 양쪽 부모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고 일관성이 없이 양육을 받거나, 전혀 훈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제멋대로 행동하며 이 경우에도 부모나 타인에 반응에 따라 비행 정도가 강화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로, 가정 내 부모의 훈육형태가 너무 가혹하고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하고(Rae-Grant, Thomas, Offord, & Boyle, 1989), 일관성이 없는 경우 심각한 아동·청소년 문제행동/품행장애와 높은 연관성이 있다(Patteson, DeBaryshe, & Ramsey, 1989).

아동초기의 부적절한 양육경험과 비행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Rey와 Plapp(1990)는 부모가 돌보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보호적 태도는 우울, 불안, 위축, 신체화 등의 내재화 문제뿐 아니라, 공격성이나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도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고했다. 또 적대적, 처벌적, 거부적, 과잉 통제적이며 수치감을 조장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공격성의 발달과 유의미하게 연관된다(Perris, Arrindell, & Eisemann, 1994). 또한 비행 등 심각한 문제행동은 부모의 감독 소홀 및 부족한 관심, 과잉보호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Labey, Piacentini, McBuremett, & Stone, 1988a).

www.dbpia.co.kr

이런 외현화 문제행동과 비행은 부모와 자녀의 애착관계, 열린 대화, 감정의 표현, 이해 그리고 수용으로 감소될 수 있다(Allen, Hauser, & Borman-Spurrell, 1996).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를 보면, 조현진과 박성수(1991)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 가정은 부모가 자녀의 생활/ 행동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날 때 명확히 지적하여 제거하는데 있어 지속성,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정상집단의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로부터 학대, 과잉간섭, 과잉기대, 방임, 비일관성의 양육행동을 더 많이 받은 반면, 지도, 감독은 더 적게 받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손석한, 노경선, 허명연, 정선옥, 이소희, 김세주, 2001).

본 연구에서 다룬 마지막 주제인 청소년기 애착과 관련된 문제행동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은 사회적 억제와 불안(Cassidy & Berline,1994), 품행장애(Lyons-Ruth, 1996), 자살행위(Adam, Sheldon-Keller, & West, 1996), 약물남용과 청소년 비행(Allen et al., 1996)과 관련 있다. 이 중 특히 애착유형과 청소년 비행을 관련지어 보면, 무시/회피형 애착 청소년은 약물남용장애, 자기도취적, 반사회적, 편집증적 성격 특성을 나타내기 쉽고(Rosenstein & Horowitz, 1996), 청소년기의 무시형 애착은 범죄 행동과도 관련 있음이 발견되었다(Allen et al, 1996). 또한 이 시기의 무시형 애착유형은 반사회적 또는 파괴적인 행동과 연관되어 있다(Renken, Egeland, Marvinney, Mangelsdorf & Sroufe, 1989; Speltz, Greenberg & Deklyen, 1991).

이와 관련된 국내연구의 경우, 오윤희와 정현옥, 옥정(2001)의 연구에서는 불안정애착유형과의 관련성에서 위험집단이 비행집단에 비해 오히려 공격성의 문제행동이 더 많고 미성숙, 사고문제나 주의집중력 등 전반적인 적응의 어려움을 주관적으로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 관련연구들의 경우 2가지 한계성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선행연구의 대다수가 기관에 수감된 비행청소년들과 통제군으로 정상 청소년들을 비교하는 연구가 대부분인 반면, 공식적인 법적 통계에 속하지 않고 언제든지 비행화될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탄력성이 부여되어 정상적인 발달궤도로 되돌아올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청소년기 애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애착이론가들 사이에 가장 신뢰롭고 타당하다는 성인애착면접(AAI)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단순한 자기보고식 평가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아동기 양육표상과 그에 따른 애착유형분류에 관해 질적인 접근을 하지 못했다는 것과 또한 이런 양육경험에 관한 단편적 연구들은 후에 잠재된 비행청소년들의 비행화를 예방하거나 통제하여 변화시키는 실제적 상담 또는 교육에 있어서 고려해야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들을 찾아내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잠재적으로 비행을 보일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애착유형과 아동 초기의 부정적인 생활사건, 부적절한 양육경험, 문제행동을 일반청소년과 비교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의 문제의 뿌리를 아주 어린 아동기부터 시작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내어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초기 애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사회·도덕적 윤리규범에 어긋나는 비도덕적인 행위, 미성년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 부적응 행동, 문제 행동을 보이지만 학교에서 이탈되지

www.dbpia.co.kr

표 1. 잠재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잠재된 비행청소년(n=30)	일반청소년(n=30)
연 령	평균(표준편차):16.4(1.40)	평균(표준편차): 15.9(.92)
형제유무	유 26(86.7%) 무 4(13.3%)	유 28(93.3%) 무 2(6.7%)
성 별	남 15(50.0%) 여 15(50.0%)	남 15(50.0%) 여 15(50.0%)
사회 경제적 수준		
상	2 (6.7%)	1 (3.3%)
중의 상	2 (6.7%)	4 (13.3%)
중의 중	20 (66.7%)	21 (70.0%)
중의 하	5 (16.7%)	3 (10.0%)
하	1 (3.3%)	1 (3.3%)
부의 연령	평균(표준편차):46.17(5.11) 범위: 40~62세	평균(표준편차): 45.62(4.75) 범위: 38세~60세
부의 학력		
초등졸	0 (0%)	1 (3.4%)
중졸	6 (20.0%)	0 (0%)
고졸	14 (46.7%)	8 (26.7%)
대졸	10 (33.3%)	17 (63.3%)
대학원졸	0 (0%)	2 (6.7%)
부의 직업유무		
유	26 (86.7%)	28 (96.6%)
무	3 (13.3%)	1 (3.4%)
모의 연령	평균(표준편차):41.07(2.81) 범위: 36~47세	평균(표준편차): 42.40(3.01) 범위: 37세~49세
모의 학력		
무학	0 (0%)	1 (3.4%)
초등졸	0 (0%)	1 (3.4%)
중졸	6 (20.0%)	0 (0%)
고졸	21 (70.0%)	15 (50.0%)
대졸	3 (10.0%)	11 (36.7%)
대학원졸	0 (0%)	2 (6.7%)
모의 직업유무		
유	16 (53.3%)	16 (53.3%)
무	13 (43.4%)	14 (46.7%)
부모님 결혼 후상태		
함께 산다	19 (66.3%)	25 (83.3%)
별거	3 (10.0%)	1 (3.3%)
이혼	6 (16.7%)	0 (0%)
사별 후 재혼경험有	2 (6.7%)	1 (3.3%)
사별 후 재혼경험無	0 (0%)	1 (3.3%)
기타	1 (3.3%)	2 (6.7%)

www.dbpia.co.kr

않고 재학 중인 위험청소년들(15세~18세)을 '잠재된 비행청소년'이라 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 볼 연구문제는 잠재된 비행청소년과 비교군인 일반청소년들의 안정애착과 불안정 애착의 분포비율과 이 두 집단이 애착유형에 따라 아동초기에 부정적 생활사건들의 경험유무/차이와 아동기 초기양육경험인 부모의 애정 경험, 거부 경험, 무관심 경험에서 차이가 있는지, 두 집단 간 문제행동정도 차이와 두 집단 내 문제행동유형을 안정애착과 불안정 애착에 따라 살펴볼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잠재된 비행청소년에 대한 검사 및 면접은 서울(10개 학교, 19학급), 경기(9개 학교, 9학급), 충청남도(1개 학교, 2학급)에 있는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中인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집 대상의 기준은 첫째, 각 해당 청소년들을 최소 6개월 이상 관찰한 경험이 있는 해당학교 교사들이 일상생활 및 학교 부적응 증상을 보이고 둘째, 사회적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일탈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 등 비행과 유사한 문제 행동을 보임으로 교내에서 처벌을 받아 잠재적으로 비행화 될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교사가 DSM-IV의 품행장애와 반항성 장애의 진단기준에 최소한 1~2개 이상 있음을 표기한 일반중학교(14명), 인문계 고등학교(7명), 종합고등학교(7명), 정보산업고등학교(2명) 학생들로 선정되었다.

비교집단으로는 일반 청소년에 대한 검사 및 면접은 서울(10개 학교, 19학급), 경기(9개 학교, 9학급), 충청남도(1개 학교, 2학급)에 있는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中인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집 대상은 마찬가지로 각 학생에 대해 충분히 관찰한 경험이 있는 교사가 학교 적응상 문제행동이 없다고 보고하고 미리 선정된 잠재 비행군과 비교하여 비행위험의 주요요소라고 알려진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능한 고려하여 추출된 일반중학교(22명), 인문계 고등학교(7명), 실업계 고등학교(1명) 학생들 중에서 연구자가 임의로 무선표집 하였다. 두 집단간 연령 [t=1.63, p <.05] , 형제유무, 성별, 사회 경제적 수준,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유무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부모의 결혼 형태에서 잠재된 비행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의 별거, 이혼, 재혼경험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성인애착면접(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의 애착유형분류

George 등(1984, 1985, 1996)에 의해 만들어진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은 초기 애착경험과 그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여 약 1시간에 걸쳐 20문항의 질문들이 제공된다. 즉, 아동기동안(5세~12세)의 각 부모와의 초기 관계를 표현하는 5개의 형용사와 각 형용사와 관련된 특정 기억, 어느 쪽 부모와 더 친했는지, 왜 특정 부모와 더 가까웠다고 느끼는지, 1)감정적으로 2) 아파서 3)다쳐서 속상했던 때와 이유, 어떻게 반응했는지, 부모에게 거절당하거나 위협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험 여부, 본인이 생각하는 부모의 행동방식에 대한 이유, 이러한 경험들이 본인의 현

www.dbpia.co.kr

재 성격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본인의 발달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지, 학대의 경험이 있는지, 의미 있는 타인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지, 현재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기부터 성인기가 되는 동안에 변화되었는지, 피검자가 부모가 된 후 자녀에게 바라는 점, 바라는 미래, 양육하면서 배웠으면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Main & Goldwyn, 1998).

Main과 그 동료들(1996, 1998)은 평정체계에 따라 애착표상유형을 4가지 자율형, 무시형, 몰입형, 미해결/ 비조직형으로 구분하였고 본 연구도 이와 같이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잠재된 비행청소년 30명과 일반청소년은 30명의 성인애착면접 전 내용은 녹음됐으며, 녹음기록은 전사본(transcript)으로 만들어졌고 1998년 8월 미국의 미네소타대학(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열렸던 성인 애착면접 연수에 참가해서 훈련받은 임상심리전문가 1인과 아동임상가 1인이 애착유형을 구분하였다. 평정자간 일치정도는 유의미하였으며(r=.78, p<.05) 이견을 보였던 사본은 다시 재검토하여 유형의 일치를 보았다.

성인애착면접내용의 부정적 생활사건들

성인애착면접 전사본 내용 중 Bowlby(1953)에 분류되어진 아동초기에 부정적 생활사건들과 Weinfield와 Hamilton(2000)의 연구에서 (2000)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의 사망 유무, 양부모 양육, 부모의 이혼 및 별거, 한부모(편부모 또는 미혼모), 부모의 약물이나 알콜 남용, 신체적 학대, 성학대 경험, 생의 초기에 분리경험(6개월 이상) 등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여 경험유무에 따라 '없다', '1개 경험', '1개 이상 경험'으로 나누어 채점하고 그 결과를 잠재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애착유형에 따라 비교해 보았다.

성인애착면접의 1차 양육 경험(Primary Parenting Experience)척도

본 연구에서는 AAI의 평정척도 중에 아동기 경험의 평정 영역으로 측정되는 1차 양육 경험인 (1) 부모의 사랑(Loving vs Unloving Parenting) (2) 거부경험(Rejection of the Child's Attachment) (3) 방임(neglect) 의 내용을 사용하였는데, 첫째, 부모의 사랑이란 신뢰할 수 있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았는지의 여부로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수용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헌신한 경우에 측정되는 것이다. 둘째, 거부경험은 부모가 아동의 애정이나 부모에 대한 의존을 거부하는 경향으로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결속이 약하거나 실제적인 아동학대를 받은 기억이나 부모가 애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았다는 기억이 포함된다. 셋째, 방임은 부모가 물리적인 도움만이 가능하고 심리적 가용성은 얻지 못하는 경우이다. 각 척도는 1점에서 9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점이 가장 낮은 점수이고 9점으로 갈수록 매우 사랑하고, 매우 거부하고, 매우 방임한 것으로 측정된다. 양육평정은 본 연구자 중 한명과 상담전공대학원생 1인이 AAI에 관한 위크샵에 참석해 평가 훈련을 받고 온 임상심리 전문가로부터 2회 5시간 훈련을 받은 후 분석하였다. 평정자들간의 일치도는 높았으며(r=.82 p<.05), 이견을 보였던 경우는 다시 한번 상세히 검토하고 토론한 뒤 조정하였다.

자기보고형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Youth Self Report: K-YSR)

Achenbach(1991.b)가 개발한 Youth Self Behavior Check List를 오경자, 홍강의, 이혜련(1997)이 한국형으로 번안하고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검사지는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119문항)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마다 '전혀

www.dbpia.co.kr

없다'는 0점, '가끔 보인다'는 1점, '매우 심하다'는 2점 등 3점 척도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의 문제, 비행, 공격성 등의 8개 척도를 제시하였으며, 그 가운데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은 내면화 문제와 비행, 공격성 2개 척도는 외현화 문제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가 .63에서 .85까지 양호하였고, 척도간 상관을 통해 확인된 수렴타당도는 남자청소년 r= .39에서 r=.97까지, 여자청소년의 경우 r=.34에서 r=.97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충남에 소재에 있는 학교 38개의 중, 고등학교를 선정한 뒤, 각 학교교사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었다. AAI 실시에 앞서 AAI에 연수에 참여한 평정자 1인으로부터 AAI 실시요강에 나온 실시자 훈련 준거에 따라 제2저자에게 1회, 3시간에 걸쳐 실시방법에 대한 교육 및 토의를 하였다. 교육을 받은 후에 제2연구자가 직접 각 기관에서 방과 후 빈교실과 상담실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청소년은 심리검사인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를 한 다음, 1: 1 개인별로 성인 애착면접(AAI)이 실시되었고, 전 과정은 1명당 1시간 30분~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녹음된 AAI 내용들은 모두 축어록으로 풀어진 뒤 분석되었다. 잠재된 비행청소년의 교사들은 추가로 DSM-Ⅳ의 품행장애, 반항성 장애 진단기준 체크리스트에 응답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Pc/Win 10.0 version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잠재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애착 유형의 분포 간의 빈도와 애착유형에 따른 부정적 생활사건의 빈도를 보기 위하여 교차분석(crosstabs)을 실시하였고, 빈도가 유의미한가를 보기 위하여 x^2분석을 하였다. 애착유형에 따른 1차 양육경험척도는 비모수 통계방법의 하나인 Mann-Whitney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 간 문제행동의 특징과 심각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집단 내 애착유형에 따른 문제행동비교를 위해 비모수 통계방법의 하나인 Mann-Whitney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잠재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AAI 애착유형 비교

청소년 애착유형을 2가지 애착유형 안정애착 [자율형(F)] , 불안정애착 [무시형(Ds), 몰입형(E), 미해결/ 비조직형(U/d)] 으로 분류했을 때 각 집단간 x^2(df)=6.94, p <.05로써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났다. 즉, 잠재된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애착유형 中 불안정애착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그림 1에 제시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애착유형을 [자율형(F), 무시형(Ds), 몰입형(E)]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을 때는 x^2(df)=7.45, p <.05로써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잠재된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애착유형 중 무시형, 몰입형이 많은 반면에 자율형이 적었다. 이는 그림 2에 제시되었다.

청소년 애착유형을 4가지 애착유형 [자율형(F), 무시형(Ds), 몰입형(E), 미해결/ 비조직형(U/d)] 으로 분류했을 때는 x^2(df)=8.38, p <.05로써 유의미

www.dbpi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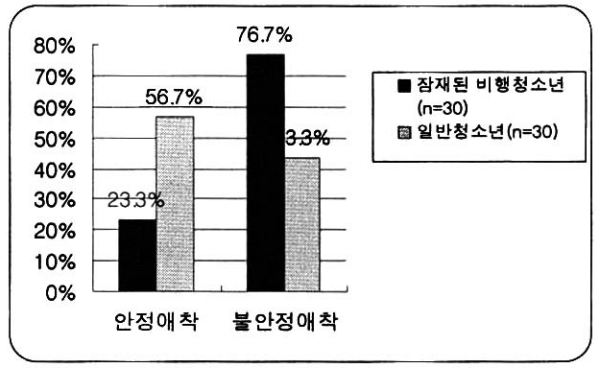

그림 1. 애착 표상유형(2가지)에 따른 잠재된 비행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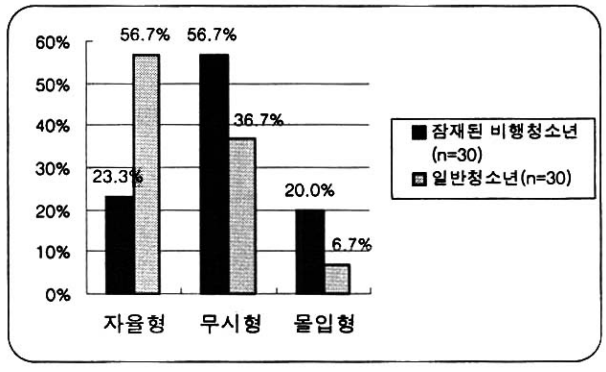

그림 2. 애착 표상유형(3가지)에 따른 잠재된 비행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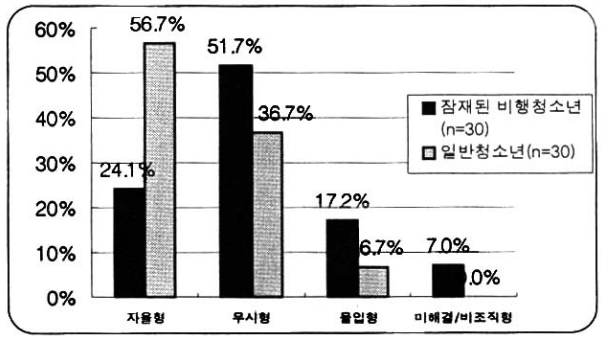

그림 3. 애착 표상유형(4가지)에 따른 잠재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교

www.dbpia.co.kr

한 차이를 나타났다. 이는 그림 3에 제시되었다.

잠재된 비행청소년은 자율형(F)이 7명(24.1%), 무시형(Ds)이 16명(51.7%), 몰입형이 5명(17.2%), 미해결/비조직형(Ud)이 2명(7.0%)으로 1명(3.5%)은 E/Ud, 1명(3.5%)은 Ud/Ds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청소년은 자율형(F)이 17명(56.7%), 무시형(Ds)이 11명(36.7%), 몰입형이 2명(6.7%)로 분포하였다. 즉, 4가지 애착유형으로 분류했을 때, 잠재된 비행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자율형이 적고 무시형과 몰입형, 미해결/비조직형이 더 많은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애착유형에 따른 부정적 생활사건 비교 분석

청소년의 집단별* 애착유형에 따른 부정적 삶의 사건들 경험 수 [경험 없다, 1개, 1개 이상]

표 2. 잠재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4가지 애착유형분포 비교

애착유형 / 집단	안정애착	불안정 애착		
	자율형(F)	무시형(Ds)	몰입형(E)	미해결/비조직형
잠재된 비행청소년 *n*(%)	7(24.1%)	16(51.7%)	5(17.2%)	2(7.0%)
일반청소년 *n*(%)	17(56.7%)	11(36.7%)	2(6.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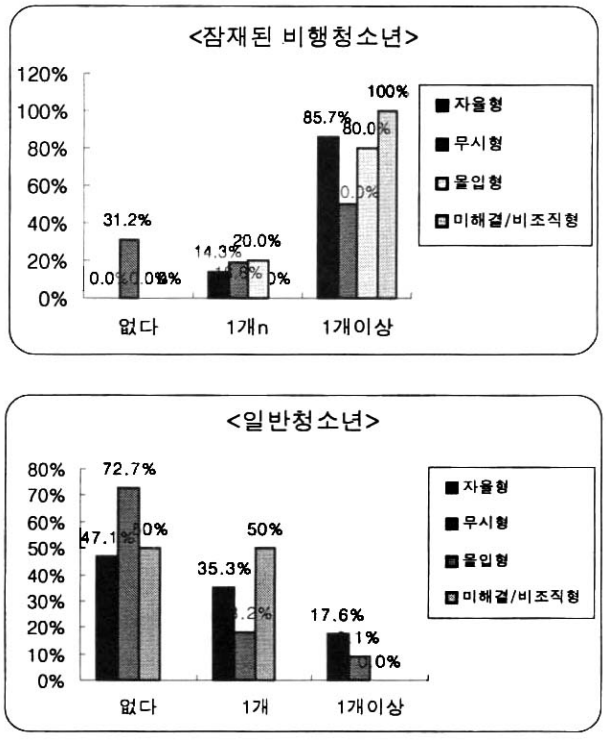

그림 4. 애착유형에 따른 부정적 생활 사건들 수량비교

www.dbpia.co.kr

으로 분류해 보았을 때, x^2(df)= 21.67, p <.001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잠재적 비행집단의 청소년은 자율형(F) 7명 중 부정적 생활 사건들 경험 수는 '1개'는 1명(14.3%), '1개 이상'은 6명(85.7%), 무시형(Ds) 16명 중 5명은 경험이 없고, '1개'는 2명(18.8%), '1개 이상'은 8명(50.0%), 몰입형(E) 5명 중 '1개'는 1명(20.0%), '1개 이상'은 4명(80.0%), 미해결조직형(U/d) 2명(10.0%) 다 '1개 이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반집단의 청소년은 자율형(F) 17명 중 '경험이 없다'는 8명(47.1%)이고, '1개'는 6명(35.3%), '1개 이상'은 3명(17.6%), 무시형(Ds) 11명 중 '경험이 없다'는 8명(72.7%), '1개'는 2명(18.2%), '1개 이상'은 1명(9.1%), 몰입형(E) 2명 중 '1개'는 1명(50.0%), '1개 이상'은 1명(50.0%)으로 분포하였다. 즉, 잠재된 비행집단의 부정적 생활 사건들 수량을 비교해보면 '1개' 또는 '1개 이상' 경험한 사람이 25명(83.3%)인 반면에 일반 집단은 13명(43.3%)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애착 유형에 따른 부정적 생활 사건경험을 비교해 보면, 잠재된 비행청소년은 미해결/조직형〉 자율형〉 몰입형〉 무시형순으로 부정적 생활 사건경험을 많이 한 반면, 일반청소년은 무시형〉 몰입형〉 자율형으로 경험을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부정적 삶의 사건들을 보면, 잠재된 비행청소년의 자율형, 무시형, 몰입형, 미해결/비조직형 모두에서 '부모의 싸움'을 경험한 후 별거나 이혼으로 이어지는 반면에 일반청소년은 자율형, 몰입형에서 '부모의 싸움'을 경험하였지만 부모의 별거경험은 1명(3.3%)밖에 안되었다. 또한 잠재된 비행청소년은 '부모의 알콜남용'으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 경험이 있는 반면에 일반청소년은 '부모의 알콜남용'과는 별개로 과잉기대에 의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된 비행청소년은 아동기의 6개월 이상의 부모와 분리경험은 모든 애착유형에서 경험하였지만, 일반청소년은 2명(6.7%)만이 분포하였다.

요약하면, 잠재된 비행집단이 일반 집단보다 부정적 생활사건들이 수량적으로 '1개' 또는 '1개 이상'인 경우가 25명(83.3%)으로 많이 경험하였고, 애착유형에서는 잠재된 비행집단은 불안정애착유형이 안정애착유형보다 많은 경험을 하였지만 일반집단은 안정애착유형과 불안정애착유형 모두 비슷하게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애착유형에 따른 부정적 생활 사건들 수량 비교

	잠재적 비행청소년(n=30)				일반청소년(n=30)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자율형 (n=7)	무시형 (n=16)	몰입형 (n=5)	미해결/ 비조직형 (n=2)	자율형 (n=17)	무시형 (n=11)	몰입형 (n=2)	미해결/ 비조직형 (n=0)
없다n(%)	0(0%)	5(31.2%)	0(0%)	0(0%)	8(47.1%)	8(72.7%)	1(50.0%)	0(0%)
1개n(%)	1(14.3%)	3(18.8%)	1(20.0%)	0(0%)	6(35.3%)	2(18.2%)	1(50.0%)	0(0%)
1개이상n(%)	6(85.7%)	8(50.0%)	4(80.0%)	2(100%)	3(17.6%)	1(9.1%)	0(0%)	0(0%)

www.dbpia.co.kr

애착유형에 따른 잠재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아동기 양육경험비교

애착유형의 3가지 유형(자율형, 무시형, 몰입형)에 따라 아동기 양육경험인 부모에 대한 애정경험, 방임경험, 거부경험으로 나누어 두 집단간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자율형 애착유형을 가지고 있는 두 집단 간 차이를 보면 아버지에 대한 애정 경험(z=-3.48, p<.01)과 어머니에 대한 애정 경험(z=-2.74, p<.05)에서 잠재된 비행집단에서보다 일반집단에서 유의수준 .05에서 더 높은(또는 긍정적인) 애정 경험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버지에 대한 거부 경험에서는 일반집단에 비해 잠재된 비행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z=-2.93, p<.01). 즉, 자율형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정 경험에서 잠재된 비행집단보다 일반집단에서 더 많은(또는 긍정적인) 애정 경험을 하였다고 나타났다. 아버지에 대한 거부경험은 일반집단에 비해 잠재된 비행집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자율형 애착유형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무시형의 애착유형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애정 경험(z=-2.45, p<.05)에서 잠재된 비행집단에서보다 일반집단에서 유의수준 .05에서 더 높은(또는 긍정적인) 애정 경험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버지에 대한 무관심 경험에서는 일반집단에 비해 잠재된 비행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z=-2.49, p<.05). 즉, 무시형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애정 경험에서 잠재된 비행집단에서보다 일반집단이 더 많은(또는 긍정적인) 애정 경험을 보인 반면 아버지에 대한 방임경험은 일반집단에 비해 잠재된 비행집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몰입형의 경우, 잠재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은 각각의 요인변인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요약해보면, 자율형 잠재된 비행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아버지의 거부경험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온 반면에 아버지, 어머니의 애정경험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무시형 잠재된 비행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무관심경험에서 높게 나온 반면 아버지의 애정경험은 낮게 나타났으며, 몰입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청소년 자신이 본 문제행동 양상 비교 분석(K-YSR)

표 4. 자율형 잠재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아동기 양육경험

		잠재된 비행청소년		일반청소년		Z
		n	평균순위	n	평균순위	
애정경험	부	7	5.21	17	15.50	-3.48**
	모	7	6.93	17	14.79	-2.74*
거부경험	부	7	18.86	17	9.88	-2.93**
	모	7	13.50	17	12.09	- .50
방임경험	부	7	14.50	17	11.68	- .92
	모	7	16.71	17	10.76	-2.06

주. *p <.05 **p < .01

www.dbpia.co.kr

표 5. 무시형 잠재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아동기 양육경험 비교

		잠재된 비행청소년		일반청소년		Z
		n	평균순위	n	평균순위	
애정경험	부	16	11.00	11	18.36	-2.45*
	모	16	11.78	11	17.23	-1.82
거부경험	부	16	16.19	11	10.82	-1.84
	모	16	15.56	11	11.73	-1.43
방임경험	부	16	16.94	11	9.73	-2.49*
	모	16	15.97	11	11.14	-1.67

주. *p <.05, **p < .01

청소년 본인이 평가하기에 잠재된 비행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들보다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YSR)에서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위축 척도 [t=2.25, p <.05], 신체증상 척도 [t=2.67, p <.05], 우울/불안 [t=2.57, p <.05], 미성숙척도 [t=2.04, p <.05], 주의집중 [t=3.63, p <.05], 비행 [t=7.29, p <.001], 공격성 [t=4.39, p <.001]에서 잠재된 비행 집단의 점수가 일반집

표 6. 잠재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문제행동양상 비교

	잠재된 비행청소년(n=30)	일반청소년(n=30)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위축	59.50(7.58)	55.00(7.91)	2.25*
신체증상	61.53(11.34)	54.97(7.29)	2.67*
우울/불안	58.90(7.86)	54.20(6.18)	2.57*
미성숙	58.33(62.51)	54.60(6.17)	2.04*
사고문제	57.60(7.73)	54.93(5.91)	1.50
주의집중	61.97(9.96)	54.40(5.61)	3.63*
비행	66.37(6.97)	54.83(5.15)	7.29***
공격성	62.73(9.34)	54.30(4.82)	4.39***
내재화	60.07(9.93)	50.00(10.53)	3.81***
외현화	65.53(11.42)	53.73(6.27)	4.96***
총문제 행동	63.13(9.54)	51.90(8.07)	4.92***

주. *p <.05, **p <.01, ***p <.001

www.dbpia.co.kr

단의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 또한 내재화척도 [t=3.81, p <.001], 외현화 척도 [t=4.96, p <.001], 총문제행동점수 척도 [t=4.92, p <.001]에서도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으나 사고문제에서만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K-YSR검사 중 집단별 남녀간의 차이를 보면 잠재된 비행청소년 중 여학생(n=15)이 남학생(n=15)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자신의 문제를 더 많이 의식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일반청소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고하고 있다. 총문제행동 척도 점수는 잠재된 비행 여> 잠재된 비행 남> 일반 남> 일반 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잠재된 비행집단은 사고문제를 제외한 모든 K-YSR척도에서 일반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잠재된 비행집단의 여학생이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잠재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애착유형에 따른 문제행동비교(K-YSR)

위의 결과를 통해 잠재된 비행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문제행동을 더 보여서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추가적으로 애착유형을 안정애착, 불안정애착로 나누어 집단 내 문제행동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면, 잠재된 비행집단은 우울/불안(z =-2.67, p< .01)과 공격성(z =-2.76, p< .01), 외현화(z =-2.85, p< .01), 총문제행동(z =-2.93, p< .01)에서 불안정애착유형이 안정애착유형보다 유의수준 .01에서, 사고문제(z =-2.50, p< .05). 내재화(z =-2.55, p< .05)는 유의수준 0.5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잠재된 비행집

표 7. 잠재된 비행청소년의 애착유형에 따른 문제행동비교

	잠재된 비행청소년(n=30)				z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n	평균순위	n	평균순위	
위 축	7	9.93	23	17.20	-1.92
신체증상	7	13.07	23	16.24	-.84
우울/불안	7	7.79	23	17.85	-2.67**
미 성 숙	7	10.00	23	17.17	-1.92
사고문제	7	8.36	23	17.67	-2.50*
주의집중	7	11.64	23	16.67	-1.33
비 행	7	11.57	23	16.70	-1.36
공 격 성	7	7.50	23	17.93	-2.76**
내 재 화	7	8.07	23	17.76	-2.55*
외 현 화	7	7.21	23	18.02	-2.85**
총문제행동	7	7.00	23	18.09	-2.93**

주. *p <.05 **p < .01

www.dbpia.co.kr

단 중 불안정애착유형이 우울/불안, 사고문제, 공격성, 내재화, 외현화, 총문제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안정애착유형보다 많이 나타났다.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일반집단의 경우 각각의 문제행동에서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요약해 보면 잠재된 비행집단 중 불안정애착유형이 안정애착유형보다 문제행동을 많이 나타낸 반면 일반 집단은 불안정애착유형과 안정애착유형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부모와의 애착유형분포를 보았을 때 잠재된 비행청소년은 자율형(F)이 7명(24.1%), 무시형(Ds)이 16명(51.7%), 몰입형이 5명(17.2%), 미해결조직형(Ud)이 2명(7.0%)으로 1명(3.5%)은 E/Ud, 1명(3.5%)은 Ud/Ds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청소년은 자율형(F)이 17명(56.7%), 무시형(Ds)이 11명(36.7%), 몰입형이 2명(6.7%)로 분포하였다. 이 결과는 잠재된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불안정애착유형(76.7%)으로 분류된 확률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해준 것과 더불어 청소년 부적응과 행동문제,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은 관련이 있음을 밝혀주는 결과로써 이는 Allen, Moore, Kupermine과 Bell(1998), 김재희 등(2001)의 결과와도 일치된다. 또한 잠재된 비행청소년의 불안정애착유형 분포도는 무시형>몰입형>미해결/비조

표 8. 일반청소년의 애착유형에 따른 문제행동비교

	일반청소년(n=30)				z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n	평균순위	*n*	평균순위	
위 축	17	15.94	13	14.92	-.35
신체증상	17	14.65	13	16.62	-.64
우울/불안	17	16.47	13	14.23	-.74
미 성 숙	17	16.03	13	14.81	-.40
사고문제	17	16.65	13	14.00	-.84
주의집중	17	15.82	13	15.08	-.25
비 행	17	14.44	13	16.88	-.77
공 격 성	17	15.47	13	15.54	-.02
내 재 화	17	14.47	13	16.85	-.73
외 현 화	17	15.62	13	15.35	-.08
총문제행동	17	15.92	13	14.96	-.29

주. $*p < .05$ $**p < .01$

www.dbpia.co.kr

직형 순서로써 특히 무시형 청소년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외국 비행청소년의 연구에서 무시형이 외현화 증상과 관련된다는 Rosenstein과 Horowitz(1996)의 연구 결과와 청소년 일탈과 관련이 있다는 일치된 결과를 뒷받침해준다(Allen et al., 1996). 이는 잠재적 비행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과 파괴적 문제행동들은 아동초기 부모와의 회피적 애착상태가 청소년기 내적 작동모델로 형성되어서 생긴 결과로 청소년기에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피하고 더불어 높은 공격성향과 방어성향을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쳤음을 예상하게 해주는 결과이다(George et al., 1994). 또한 자율적인(안정된) 성인 즉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정서상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전기저를 제공받아 정서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발달의 실패로 여겨질 수도 있다(Allen & Land, 1999). 또한 일반청소년의 경우도 안정형의 비율이 56.7%로 대체로 성인의 안정애착비율에 비해 다소 낮은점과 두 집단 모두 불안정애착유형 중 무시형이 가장 많은 것도 일반적인 청소년기의 애착특성이라는 선행연구의 설명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잠재된 비행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부정적 생활사건들을 '1개 이상' 경험(83.3%)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청소년비행의 문제를 이해할 때 부정적인 생활사건들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들은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별거, 한 부모, 부모의 알코올 중독, 학대 등의 부정적 생활 사건은 청소년의 행동을 감독하는 부모의 능력을 방해하고, 청소년은 그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경제적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또한 반사회적 행동이 야기되고 세대를 이어가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Hamiltion 등(2000)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Waters, Merrick, Albersheim과 Treboux (1995)은 아동기 부정적 생활사건이 청소년기에 안정애착비율을 70%에서 44%로 떨어뜨린다는 결과를 보고했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잠재된 비행집단의 안정비율이 낮고 부정적 생활사건의 많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 특히 두 집단의 청소년 모두 부모의 싸움을 경험하지만 잠재된 비행집단에서만 이혼이 큰 분포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의 비행 및 품행문제를 일으키는 강력한 설명요소임을 입증한 외국의 종단적 연구결과들(Buchanan, Maccoby, & Dornbusch, 1991; Kline, Johanston, & Tschann, 1991)이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들은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강한 위험 요인을 보이고, 부모나 사회적 규범들을 거의 내면화하지 못하여 사회적 정보처리에서 결함을 갖는다는 연구결과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할 것이다(Dodge, 1991; Dodge et al., 1990; Dodge et al., 1995).

두 집단 청소년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비교를 애착유형별로 보았을 때, 무시형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생활사건이 없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무시형 애착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이 축소화전략을 사용하여 애착의 중요성과 자신에게 미친 영향력을 평가절하 시키고 있으며, 애착 대상자로부터 겪은 부정적 경험(특히 거부의 경험)은 정상화 시키고 부모에 대한 이상화와 아동기 기억의 열악성 특성이 미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Becker-stoll & Borman-spurrell, 1997).

셋째, 잠재된 비행청소년은 '부모의 애정', '거부', '무관심' 등의 모든 양육경험에서 일반 청소년들보다 부정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행문제 예방연구들에서 부모의 온정적이고 합리적

www.dbpia.co.kr

인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예방한다는 기존의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이다(Ciccetti & Toch, 1995; Reiss, Hetherington, Plomin, Howe, Simmens, Henderson, O'Connor, Bussell, Anderson, & Law, 1995; Wasserman, Miller, Pinner, & Jaramillo, 1996). 또한 부모의 낮은 돌봄과 높은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우울, 불안, 위축, 신체화 등의 내재화 문제뿐만 아니라 공격성,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와 관련되고(Rey et al., 1990), 적대적이며 과잉통제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에게 수치감을 조장하고 공격성의 발달과 유의미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다(Perris et al, 1994). 특히 잠재된 비행청소년 중 자율형을 보인 7명에게서도 자율형 일반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아버지와의 애정경험은 적고 거부경험이 많음을 보여주었는데 이 결과는 부모 중 특히 아버지와의 애착관계가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매우 부정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게 해준다. 반대로 어머니와의 애착관계에서는 자율형의 경우에서만 애정경험이 두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아버지에 비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자율형과 몰입형의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통제력이 부정적 양육 상태에서도 완충자(buffer)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Patterson, DeBaryshe과 Ramsey(1989)의 입장과도 연결지어볼 수 있겠다. 이상의 결과는 본연구의 대상자들이 아직까지 탄력성이 부여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행동군임을 고려할 때 어머니 관계의 긍정성은 추후 상담 및 치료적 접근에서의 주요요소로써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외현화 문제행동과 비행을 보인 청소년들이 부모와 자녀의 애착관계, 열린 대화, 감정의 표현, 이해 그리고 수용경험을 통해 문제행동이 감소되었다는 보고(Allen et, al., 1996)는 상담적 과정에서 적용을 고려해 볼만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넷째, 청소년 자신이 지각한 문제행동의 양상과 심각성에 관한 결과에서 잠재된 비행청소년들은 사고문제를 제외한 모든 K-YSR척도에서 일반청소년들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잠재된 비행청소년의 행동 및 정서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문제집단의 우울/불안 성향이 의미 있게 높은 것은 학령기의 일차양육자와의 부적절한 관계형성과 부정적인 양육경험(학대 포함)으로 발생한다는 Toth와 Ciccetti(1996)의 결과와 일치한다.

집단간 차이에서는 문제행동의 하위척도인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잠재된 비행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공격성의 문제 외에도 미성숙과 주의집중력 등의 전반적인 적응의 어려움을 주관적으로 많이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담개입이 필요함이 시사된다. 그러나 다른 애착 조망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단순히 심리적 고통이나 정신병리의 표현일 뿐 아니라 부모-청소년간의 상호작용의 특성을 변화하려는 시도라고도 본다. 일부 연구자들은 외현화 문제행동 자체가 애착행동으로 부모의 도움이나 개입을 촉발시킨다고 보았다. 즉, 불안정 애착유형을 가진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화를 내고 적대감을 나타내는 외현화 행동을 통해 도움의 요구를 나타내는 의사소통의 주요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Allen et al., 1999; Kobak, Cole, Ferenz-Gillies, Fleming, & Gamble, 1993). 외현화 문제행동은 그 자체가 애착행동으로써 청소년 측에서 부모에게 도움과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며 애착관련 관심을 다루는데 만성적으로 과잉 개입하는 몰입형 청소년은 양육자의 반응을 구하는 수단으로 극단적이고도 양가적인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두 유형의 불안정애착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

www.dbpia.co.kr

계에 집중하다보니 부정적 정서를 자기 스스로 조정하는 능력을 배우는데 실패하고 타인의 조절능력을 배우기 위해 탐색하는 능력도 키우지 못했다고 본다. 또한 이는 사회적 능력감의 저하를 가져와 다시 부모와의 관계를 탐색하고 재협상해 가는 능력의 실패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애착관련 정서나 경험에서의 불편감은 무시형 청소년이 또래를 배격하게 하고 심지어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만든다고 한 연구결과를 이해하게 만든다(Kobak & Sceery, 1988). 결국 이 메카니즘은 부모와의 애착관계 작동모델이 새로운 애착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게 해준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시사점으로 일반청소년의 경우에도 불안정 애착 비율이 존재하였으나 자신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결과에서는 안정애착과 불안정 애착유형간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추후연구를 통해 부모와의 불안정애착이 청소년기 비행/행동문제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경로에 대한 분석과 그 과정에서 찾아낸 보호요소와 탄력성요소를 찾아내어 청소년 상담과 예방차원의 접근에 적용해야함을 제한게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 대상이 각각 30명으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사회 환경 변인을 더욱 통제하고, 연구 대상 크기가 좀 더 큰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둘째,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자신이 평가한 것 외에 주변인들의 평가도 포함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 집단과 학교 내에 있는 잠재된 비행집단외에, 비행문제정도가 더 심각한 수감된 비행집단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이 집단들을 구분해 주는 여러 특성에 대해 알아보아야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국내 상담분야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AAI를 통한 청소년 애착평가의 질적인 접근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으며 또한 자세한 양육경험에 대한 보고를 분석하여 부정적 생활사건과 양육경험의 내용을 찾아낸 것은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애착유형별로는 서로 다른 심리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고 청소년문제의 탄력적 요소로 어머니 역할을 찾아내어 추후 상담적 접근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기 양육자와의 불안정애착과 부정적 양육경험이 청소년기에 심리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는 이들이 후속적으로 양육자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또 다음 세대에서 불안정성과 문제를 이어가게 한다는 부정적 연결고리에 관한 애착이론적 조망을 일부 확인하였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재희, 주은선 (2001). 부적응 청소년 집단의 애착 유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107-125.

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정현옥, 이소희, 김세주 (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40), 605-615.

오윤희, 정현옥, 옥정 (2001). 청소년기 애착유형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재소중인 비행집단, 위험집단, 정상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259-270.

원호택 (1990). 青少年 犯罪行動 誘發 要因에 대한 心理學的 硏究.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현진, 박성수 (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심층적 면접에 의한 분석, 한국심

www.dbpia.co.kr

리학회지: 발달, 14(1), 55-74.

Achenbach, T. M. (1991a). Manual for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Achenbach, T. M. (1991b). Integrative guide for the 1991 CBCL/4-18, YSR, and TRF profiles.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Adam, K. S., Sheldon Keller, A. E., & West, M. (1996). Attachment organization and history of suicidal behavior in clinical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264-272.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ist, 44,* 709-714..

Allen, J. P., Hauser, S. T., Bell, K. L., & O'Connor, T. G. (1994). Longitudinal assessment of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family interactions as predictors of adolescent ego development and self-esteem. *Child Development, 65,* 179-194.

Allen, J. P., Hauser, S. T., & Borman-Spurrell, E. (1996). Attachment insecurity and related severe adolescent psychopathology: An eleven-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254-263.

Allen, J. P., & Land, D. (1999). Attachment in adolescence,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319-335).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Allen, J. P., Moore, C. M., Kuperminc, G. P., & Bell, K. L. (1998). Attachment and adolescent psycho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9(5),* 1406-1419.

Becker-stoll, F., & Fremmer-Bombik, E. (1997, April). Adolescent-mother interaction and attachment: *A longitudinal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 Washington, DC.

Bowlby, J. (1944). Forty-four juvenile thieves: Their character and home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sis, 24,* 19-52, 107-127.

Bowlby, J. (1953). Child care and the growth of love.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Buchanan, C. M., Maccoby, E. E., & Dornbusch, S. M. (1991). Caught between parents: Adolescents' experience in divorced homes. *Child Development, 62,* 1008-1029.

Cassidy, J., & Berlin, L. J. (1994). The insecure/ ambivalent pattern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Child Development, 65,* 971-981.

Cicchetti, D., & Toth, S. L. (1995).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on chil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4,* 541-565.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1990). how chronic conduct problems develop, *Unpublished grant proposal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Dodge, K. A. (1991).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D. J. Pel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pp.201-218). Hillsdale, NJ: Erlbaum.

Dodge, K. A., Pettit, G. S., Bates, J. E., & Valente, EE. (1995). S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patterns partially mediate the effect of early

www.dbpia.co.kr

physical abuse on later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632-643.

George, C., Kaplan, N., & Main, M. (1984). Attachment interview for adult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George, C., Kaplan, N., & Main, M. (1985). An adult attachment interview: Interview protocol.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George, C., Kaplan, N., & Main, M. (1996). *Adult Attachment Interview.*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3d ed).

Grotevant, H. D., & Cooper, C. R. (1983). Sanfrancisco: Jossey-Bass, Adolescent development in the family, editors. SanFrancisco: Jossey-Bass.

Hamilton., & Claire E. (2000).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Attachment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1(3),* 690-694.

Kenny, M. E., & Perez, V. (1996).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racially and ethnically diverse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7,* 527-535.

Kobak, R. R., & Cole, H. E., Ferenz-Gillies, R, Fleming, W. S., & Gamble, W. (1993). Attachment and emotion regulation during mother-teen problem solving: A control analysis. *Child Development,* 64, 231-245.

Kobak, R. R., & Cole, C. (1994). Attcahment and metamonitoring: Implication for adolescent autonomy and psychopathology. In. D. Cicchetti (Ed.),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269-297.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Labey, B., Piacentini, J., McBuremett. K., & Stone, P. (1988a). Psychopathology in the parents of children with conduct disorder and hyperactivity. *J Am Acad Child Psychiary, 27,* 163-170.

Lyons-Ruth, K. (1996). Attachment relationships among children with aggressive behavior problems: The role of disorganized early attachment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64-73.

Main, M., & Goldwyn, R. (1996). *Adult Attachment Classification System.*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8,* 203-217.

Main, M., & Goldwyn, R. (1998). *Adult Attachment Classification System.*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apini, D. R., & Roggman, L. A. (1992). Adolescent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s in relation to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258-275.

Patterson, C., DeBaryshe, B., & Ramsey, E. (1989). A development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J Am *Psychology,* 44, 329-335.

Perris, C., Arrindell, W. A., & Eisemann, M. (1994). *Parenting and psychopathology.* England: John Willy & Sons Ltd. pp3-26.

Rae-Grant, N., Thomas, E., Offord, D., & Boyle, M. (1989). Risk, protective factors, and the prevalence of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 Am Acad Childadolesc Psychiatry, 28,* 262-268.

Reiss, D., Hetherington, E. M., Plomin, R., Howe,

www.dbpia.co.kr

G. W., Simmens, S. J., Henderson, S, H., O'Connor, T , J., Bussell, D. A., Anderson, E. R., & Law, T. (1995). Genetic questions for environmental studies: Differtial parenting and psychopathology in adolescenc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2*, 925-936.

Renken, B., Egeland, B., Marvinney, D., Mangelsdorf, S., & Sroufe, L. A. (1989). Early childhood antecedents of aggression and passive withdrawal in early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Personality*, *57*, 257-281.

Rey, J. M., & Plapp, J. M. (1990).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in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9*, 382-385.

Rosenstein, D. S., & Horowitz, H. A. (1996). Adolsescent attachment and Psychpo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224-253.

Rutter, M. (1995a).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concepts: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6,* 549-571.

Rutter, M. (1995b). Maternal deprivation.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4. Applied and practical parenting(pp.3-31). Mahwah, NJ: Erlbaum.

Rutter, M., & Smith, D. J. (1995), *Psychosocial disorders in young people: time trends and their causes*, Published for Academia Europaea.

Speltz, M. L., Greenberg, M. T., & DeKlyen, M. (1991, April). Attachmant in preschoolers with disruptive behavior: A comparison of clinic referred and nonproblem 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attle.*

Toth, S. L., & Cicchetti, D. (1996a) Patterns of relatedness,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perceived competence in maltuat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al Psychopathology, 64*, 32-41.

Wasserman, G. A., Miller, L. S., Pinner, E., & Jaramillo, B. (1996). Parenting predictors of early conduct problems in urban, high-risk boy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 1227-1236.

Waters, E., & Cumming, E. M. (2000). A Secure Base from which to Explore close Relationships. Child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71,* 164-172.

Waters, E., Merrick, S. K., Albersheim, L., & Treboux, D. (1995). Attachment security from infancy to early adulthood: A 20-year longitudinal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pment,* Indianapolis, IN.

Waters, E., Weinfield, N. S., Hamilton, C. E. (2000). The Stability of Attachment Security from Infancy to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General Discussion. *Child Development*, *71(3),* 703-706.

Zeanch, C. H., & Emde, R. N. (1994). Attachment disorders in infancy. In M. Rutter, L. Hersov, & E. Tayor (Eds.), *Child and adolescent psyciatry: Modern approaches(pp.490-504)*. Oxford, England: Blackwell.

원 고 접 수 일 : 2003. 12. 15
수정원고접수일 : 2004. 6. 16
게 재 결 정 일 : 2004. 8. 3

www.dbpia.co.kr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4, Vol. 16, No. 3, 511-532

A Comparative Study on Childhood Parenting Experience and Behavior Problems according to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AAI) of A Potential Delinqency Adolescents

Kyung-Sook Lee Hye-Ryun Um Young-Yun Chung

Hanshin Universit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ttachment types, related childhood experiences, and behavior problems in 30 potential delinqency adolescents with school maladjustment and delinquency problems and 30 non-potential delinqency adolescents without any conduct problems have been compared and analyzed in this study. The AAI and K-YSR for adolescents and Conduct/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Diagnosis Checklist for teachers administered by examiner. The results have showed that a distribution of attachment types was Dismissing > Autonomous > Preoccupied > Unresolved/disorganized (in the descending order) type in potential delinqency adolescents and Autonomous > Dismissing > Preoccupied type in non-potential delinqency adolescents, respectively. Potential delinqency adolescents have had larger number of negative life experiences in early childhood than non-potential delinqency adolescents. Also, potential delinqency adolescents of insecurely attached types have had larger number of negative life experiences than secure attachment types.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numbers of negative life experiences between stable and unstable attachment types innon-potential delinqency adolescents. Comparison of childhood parenting experiences has showed that potential delinqency adolescents have experienced less parental affection and more parental rejection and neglect than non-potential delinqency adolescents. In the K-YSR, potential delinqency adolescents showed more behavior problems than non-potential delinqency adolescents.

Key Words : adolescent attachment, AAI, delinqency, childhood parenting experience, behavior problem, K-YSR

www.dbpia.co.kr